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는
도시라슬여행 사진집

우리 지금, 여기에





목차

기획의 글	004
부평역 광장	014
미안마거리	020
경원대로	042
부평공원	054
부평공원로	074
공방거리	080
신촌교	102
캠프마켓	106
안남로	124
부영공원	130
함께 한 여행자들	156

기획의 글





여러 층위의 시간과 삶이 레이어드된 우리 지금, 여기에

부평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전에 부평에 대해 알기 바랐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최근 어떤 현상이 있고, 과거의 역사적 사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정작 이 도시는 어떠한 곳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설득력 있게 전개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도시라슬여행은 부평이 문화도시를 이뤄가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의제를 제안하는 문화두레시민운영회를 위한 스터디투어로 기획되었다. 걷기는 우리가 가장 쉽게 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운영회원들과 나누던 도시 이야기에서 거론된 곳을 바탕으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여행지점을 세팅했다. 도시라슬여행이 여느 스터디투어 프로그램과 다른 부분은 이 사진집이 제작된 데에 있다. 여행하는 동안 참가자들이 1일 사진작가가 되어 휴대폰으로 거리의 모습을 채집했고, 촬영된 사진을 묶어 이번 사진집을 만들었다. 여행 당일에는 기어코 비가 왔다. 그날 만족스러운 분량의 사진이 나오지 않아 흐린 날 다시 찾아가 추가로 촬영했다. 여기에 실린 사진은 휴대폰과 카메라 촬영본이 섞여 있으며, 전문 사진작가의 선별과 크롭과정을 거쳤다.

우리는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부평1동 광장로 4번길’에서 여행을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과 겹쳐 일정과 코스가 전면 바뀌면서도 유일하게 코스에 포함된 곳이다. 여러 번에 걸쳐 부평의 주요 쟁점이 있는 곳으로 거론했던 장소였으나 다수의 미얀마인이 군집하여 생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찾아간 적이 별로 없는 곳이다. 1990년대만 해도 부평역 앞 여인숙촌으로 일컬어졌던 역전파출소 뒷 골목은 20년이 지나지 않아 미얀마 거리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여인숙촌이나 미얀마 거리라고 핏말이 붙어있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불렀다.

일제강점기이나 미군정, 어느 시기에 시작했든 이 일대에 윤락업이 성행한 것이 현재 까지 이어지고 있다. 생활난을 겪던 많은 여성 약자들이 생존의 방편으로 찾아든 이곳은 여전히 값이 저렴하여 미얀마 난민이 찾아들기에도 적합했다. ○○여인숙, 20분에 얼마라는 저렴하고 저질스러운 정보에 이끌려 술하게 뜨내기들이 오가는 황폐한 여인숙촌 곳곳이 서로 간의 온기를 찾아낸 미얀마인들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채워졌다.

도시라슬여행의 마지막은 부영공원으로 캠프마켓으로 사용되던 장소를 28년이 지난 2002년에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현재는 인접한 곳에 우성산곡4차와 현대2단지 이렇게 약 2천 세대가 조성되어 아파트 주민들이 동네 산책과 운동을 위한 공원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 부지 크기로만 봤을 때도 부평공원과 비등하고, 시야가 트인 넓은 이 공원에서 야구와 축구경기도 가능하다. 생활체육을 위주의 시설이 갖춰진 공원 한편에 박혀있는 철심은 일제강점기 포로수용소의 흔적이다. 무기를 제조하는 조병장이었던 부영공원은 반공포로수용소의 자취가 남아있고, 일본이 조선을 병합 기지화 하기 위해 군수품 저장을 계획했던 지하호가 발견되었다. 수 개의 지하호는 부평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수풀로 우거진 부영공원에서 드러난 지하호는 정교하게 설계되어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단서와 비밀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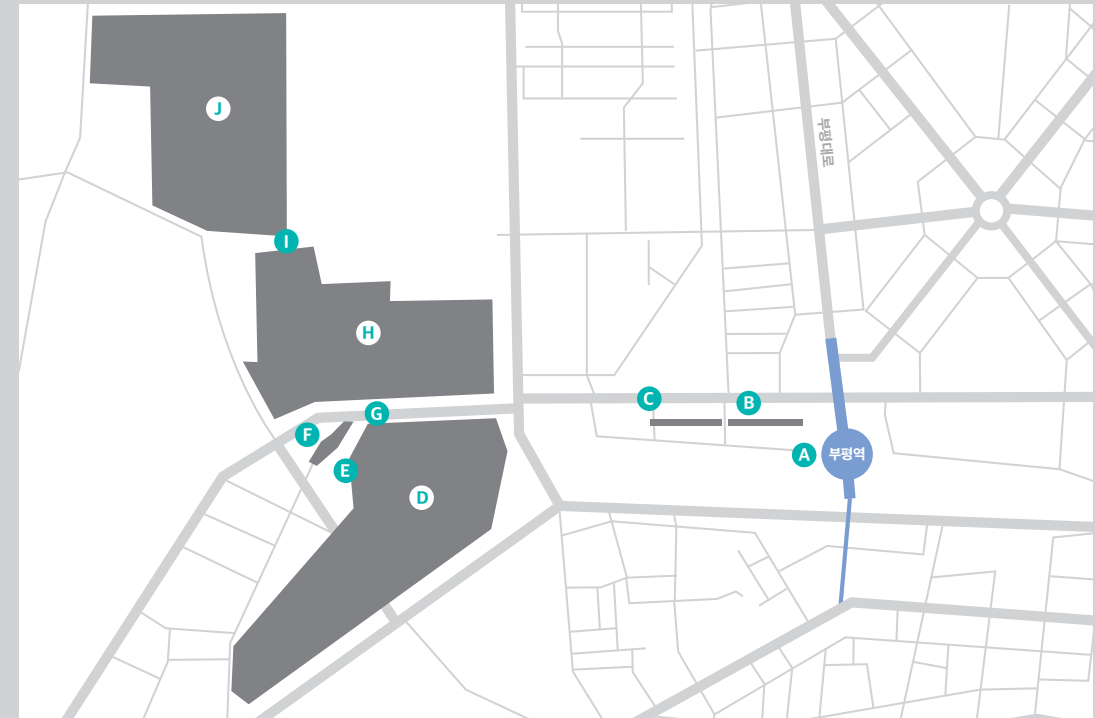
우리가 찾은 장소들은 여러 층위의 시간과 삶이 레이어드 되어 있었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 후 현재의 모습으로 재탄생 되었다. 자연발생적으로 전환기를 맞은 미얀마 거리는 어떤 문화가 구축되어 이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관계가 얹혀들어 독특한 관습이 형성되었다. 관 주도의 도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부영공원에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생활문화가 생성되었고, 현재 도시민들은 과거 장소의 쓰임과 상관없이 지금의 편의와 쾌적함을 추구하며 살기도 한다. 누구에게는 가치 있는 역사적 진실이 누구에게는 안락한 생활을 위협하는 불편한 정보로 상대적 이해관계와 변화에 따라 지역의 시대적 갈등현상으로 드러난다.

참여자 한 분은 비 오는 곳은 날씨를 감내하며 걸어 다닌 것이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라고 했다. 우스갯소리였지만 우리가 나선 길모퉁이에서 서러움과 고달픔을 발견하고, 터를 잡은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과 축축해진 길은 가을풍경을 마주하며 고양된 기분과 정신이 맑아짐을 느낀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여행은 끝났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도시를 처음처럼 즐겁게 누렸던 그날의 사진은 선물처럼 남았다. 부디 여기에 참여한 분들에게 도시의 한 꺼풀을 알게 된 추억이자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기 바란다.



여행코스

- A 부평역 광장
- B 미안마거리
- C 경원대로
- D 부평공원
- E 부평공원로
- F 공방거리
- G 신촌교
- H 캠프마켓
- I 안남로
- J 부영공원



부평역 광장







나이테갈이



사물놀이 광장

미얀마거리



노동자, 화교, 일본인 등이 19세기부터 외국인은 존재해 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생긴 이후 2022년대인 현재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내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되고 있다. 2018년 외국인은 205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대한민국 인구의 4%를 넘어서는 중이다. 이들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어업, 관광·숙박업까지 일터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을 이끄는 주요 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광장로 4번길로 불리고 있는 미얀마 거리를 중심으로 인근에 부평4공단, 주안5공단, 남동공단, 안산시흥공단, 구로공단 등이 위치하고 있다. 1990년대 초기에는 중국인·조선족들이 인근 여관 또는 구도심에 많이 거주하였으나 2010년대부터는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며 미얀마 거리가 형성되었다. 외국의 한인촌이나 코리아타운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레 이해될 것이다.

미얀마 거리에 서 있으면 다양성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느낀다. 다시금 부평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시기라고 본다.

처음에는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생길 수 있지만 사회정체성은 언제나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미얀마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부평의 다운타운 인근이었던 미얀마 거리는 낮은 산록지대로 1930년대 경원대로가 생기기 전에는 부평공원에 있던 홍증공장(히로나까상공)으로 가는 길의 원형이다. 1899년에 생긴 경인철도 옆길과 1883년에 개설된 옛 경인로는 인천-부평-서울의 교통로 역할을 하였다. 1940년 당시 부평역 광장에는 윗마을이 있었으나 조병창이 들어서며 동양 최대의 로터리가 생기며 없어졌다. 예전 부평에는 큰 우물이 있어 ‘대정리(大井里)’라 불렸으나 부평역 로터리와 부평대로가 생기며 큰 우물은 사라졌다.

미얀마 거리

📍 **주소** 인천 부평구 광장로4번길

📖 **내용** 밍그리바, 쉼비난, 창네 버마식당, 까옹 깐텍, 간고 등
다양한 미얀마 식당이 있음



밍그라바 2호점

밍그라바 미얀마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 주소 인천 부평구 광장로4번길 35

🍽️ 메뉴 세이따, 응아빠, 모힝가 등



미얀마 전통 소품 ©김명숙





미얀마에서 멀리 온 ©서현숙





မင်္ဂရာဘာ ဝန်ခံ



ရှေ့အိမ်စံ



까웅킨텍



여인숙거리







타투와 그래피티



우정, 장미, 스타

경원대로





경원대로 여러 팻말







세월의 흔적



소나무와 비둘기



부평공원사거리





일상



기차길과 찾길

부평공원



부평공원은 부평3동에 있는 공원 중 하나이다. 일제강점기에는 히로나카상공과 국내에 남아 있는 일제의 침략전쟁인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조선인 강제동원을 기억하게 하는 미쓰비시(三菱) 제강의 건물들로 이어지는 공장 터였고, 해방 후에는 미군과 국군이 주둔하기도 했다.

육군 88 정비부대가 1995년까지 이곳을 지켰고 총 58동의 군 건물들을 깨끗이 철거 이후 2002년에 부평공원으로 개장하였다.

부평공원에 들어서면 2개의 조형물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하나는 ‘평화의 소녀상’이고 또 하나는 ‘징용노동자상’이다. 의자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다른 지역의 소녀상과 달리 맨발로 우뚝 서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 2018년 8월 12일, 평화의 소녀상 옆으로 징용노동자상이 건립되어 당시의 아픔을 전달하고 있다.

징용노동자상은 지영례와 이연형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됐다. 지영례는 소화고등여학교(박문여고 전신으로 부평6동에 위치)를 다니던 중, 근로정신대로 징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인천육군조병장에 들어가 해방이 될 때까지 조병창 내에 있던 병원에서 보조 업무를 맡았다. 이연형은 1939년 10월부터 1941년 5월까지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 직공으로 근무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던 것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2002년 4월 12일에 개장한 부평공원은 현재 11만 3,123㎡ 규모로 산책로와 광장, 야외무대가 조성되어 있고 다양한 체육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는 부평 주민의 대표적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부평공원

📍 **주 소** 인천 부평구 부평동 286-1번지 일원

☎ **번호** 032-832-3031

🗺 **내용** 산책로, 분수대, 물놀이장 조형물 등

🔍 **기타 정보** 주차 가능, 애완동물 동반 가능, 유모차 대여 없음



놀이터











고요한 평화



걷는다



걷는다



흐린 날



평화로운_©박일용



기지개



내일을 위한 준비



온건함

부평공원으로





멋들어진 담벼락 ©한태경



61파크에비뉴



퍼캠프마켓



갤러리 입구

공방거리



신촌은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와 인천도호부가 만나는 경계 지역이었다. 신촌은 과거 조병창과 미군부대의 영역권 내에 있었고, 부대 사이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부평 내에서 미군부대와 가장 인접한 지역이면서 부대 정문과 가까워 미군의 출입이 빈번한 목의 자리이다. 이런 환경 때문에 미군을 상대로 한 클럽 등 유흥업소가 생기게 되었고 종사자들도 모이게 되었다. 주민 입장에는 미군 부대 근로자로 종사하면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따라서 신촌은 우리나라 최초로 미군 기지촌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신촌로라는 명칭은 1974년 5월 10일자로 처음 지정됐다. 그 당시에는 굴다리오거리에서 부평역을 거쳐 부평삼거리까지 이어진 도로를 신촌로라고 이름 붙였다. 이 길을 따라 음악 클럽, 약국, 양장점, 사진관, 미장원, 양키 상점, 시장 등이 번성했지만 1973년 에스컴시티가 해체되며 양키 물건이 넘쳐나던 신촌시장과 외국인 전용 클럽들과 부대고기 음식점들로 이루어진 변화한 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며 조용한 길이 되었다.

후에 부평도서관 앞으로 원통로가 뚫리고 다시 경원로를 거쳐 경원대로가 되면서 현재 신촌로는 바로크 악기(부평동 270-32)와 진선자동차공업사(부평동 270-7) 사이에서 시작해 신촌성결교회 앞을 지나 부안고가까지 이어진 길을 가리키는 도로명이 됐다.

2000년대부터 그 길에는 신촌에 단단히 뿌리내린 토박이들과 새 숨을 불어넣는 문화예술가들의 일상이 공존하기 시작했다. 신촌의 오래된 골목엔 소담한 가게가 어깨를 맞대고 서 있으며 예술가들이 만드는 예쁜 공방거리와 먹자골목, 향기에 빠져드는 커피숍 거리, 악기와 음악과 공연과 전시가 어우러지 1960~70년대의 음악캠프인 ‘펍 캠프마켓’과 음악 공방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신촌로는 부평공원을 마주 보고 있으며 대중음악의 뿌리, 음악 도시 부평의 문화도시로 자리매김의 토대를 잡아가고 있다.

알음알음 입소문이 나며 ‘신촌공예공방거리’라는 이름도 생겼다. 패브릭 소품, 뜨개질(제니공방), 한지 공예, 가죽·나무 공방(창아트), 도자기 페인팅 등 공방지기에 따라 작품도 다양하다.¹

¹ 굿모닝인천 2022년 9월호 참조





신촌아지트 ©고다운

문화공간 신촌ART

📍 주소 인천시 부평구 신촌로 85-1

📖 내용 작품전시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방갤러리



제니공방

제니공방

📍 주소 인천시 부평구 신촌로 85

📖 내용 바느질공방, 부평학습다방(바느질 공예 작품만들기), 카페



제니공방 ©정석남



하늘공방

하늘공방

📍 주소 인천시 부평구 신촌로 84-1

🕒 영업시간 월~토요일 10:00 ~ 21:00

📖 내용 도자기 핸드페인팅 전문공방, 나만의 그릇을 만드는 곳

📱 인스타그램 @haneul_gb.



창아트공방

창아트공방

📍 주소 인천시 부평구 신촌로 83-1

📖 내용 가족공예체험



은혜한지공방

은혜한지공방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 84

📖 내용 한지를 이용한 전통 공예작품, 부평학습다방
(한지공예 고(古)가구 만들기)



패브릭이야기



따뜻한 평안함



재봉틀





골목이삿집 ©서현숙



또와상회





전봇대 ©서현숙



전통자수공예품

신촌교





캠프마켓



캠프마켓은 주한미군(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의 군사시설 중 한 곳이
었다. 캠프마켓은 용산미군기지(Yongsan Garrison) 관할 아래 있으면서 미 제8군의
지휘를 받아 왔다. 캠프마켓은 흔히 ‘빵 공장’ 또는 55데포(Depot)라고 불리어 왔다.
이 명칭은 미 육공군 교역처 베이커리(AAFES Bakery)가 있기 때문이다.

캠프마켓에는 베이커리 이외에도 주한미군 군수품 재활용사무소(DRMO :
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나 창고 등의 저장 시설(병참창
-Depot)과 수송대·병기대·공병대·통신대·의무대·화학창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간혹 훈련 시설로 활용되기도 했었다.

캠프마켓은 그 전에 있던 ‘에스컴 시티(ASCOM City)’의 메인 구역이었다. 1950~
60년대를 기준으로 캠프마켓을 중심으로 6개의 미군부대가 있었다. 에스컴 시티란
명칭은 1945년 9월 16일부터 미 제24군수지원사령부가 부평의 일본군조병창 지역
으로 이동하여 주둔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50~70년대 전후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라면 인천항을 통해 한 번쯤 부평역과
보충대가 있던 에스컴시티를 거쳐 전국에 산재해 있던 미군기지로 갔으리라 본다.
그래서 이곳 부평은 1945년부터 서양 대중음악의 출발지로 시작하여 클럽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50여 개가 넘는 클럽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스탠다드 팝과
로큰롤 등의 음악이 유입되고 수많은 음악인들을 배출 및 활동하면서 타 지역 진출을
위한 주요 거점이었다. 또한, 국내 대중음악 장르가 확장되는 계기를 주었다.

시간이 흘러, 미군이 물러나며 대부분의 클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질곡의 세월을
지나 시민의 힘으로 되찾은 캠프마켓은 이제 시민들의 쉼터, 시민들의 문화지대로의
변신을 시작한다.
굿바이 에스컴 시티.

캠프마켓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3동 449

☎ **번 호** 032-456-5540

📏 **반환공여구역 면적** 445,921㎡





오늘&내일



B구역 안내도





캠프마켓



개수대







가족



구조물

안남로







인천경찰청맨홀



부평구 상징물



구조물 아래

부영공원



캠프마켓을 중심으로 인근에 6개 미군기지 중 하나인 8057부대로 불리었던 캠프 헤이즈가 있었다. 부영공원과 ‘백운역 현대아파트’, 부평서중학교에 걸쳐 있던 미군 기지다.

캠프 헤이즈는 지금의 백운역 방향에서 갈라져 나온 철로가 연결되어 있었고, 한국군 제3 보급단으로 연결되는 부평선 철로가 있어 1950~70년대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 이라면 한 번쯤 이곳 부평을 거쳐 갔을 것이다. 캠프 헤이즈는 특히 6.25전쟁 중 제 10반공포로수용소가 설치된 곳으로 주목할 만한 장소다.

지금의 부영공원 자리에 수용소가 있었고,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한국전쟁 중 부산, 논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반공포소수용소가 설치됐다. 부평은 제10반공 포로수용소로 1,486명의 반공포로가 수용되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있는 반공포로들을 기습적으로 석방시켰으나 부평은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를 안 포로들이 집단적으로 수용소를 탈출하면서 42명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언론은 포로 석방 명령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충돌이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부평 반공포로 수용소가 즉시 석방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부영공원에는 길이를 알 수 없는 인천육군조병창 지하호 시설 2층 구조가 남아 있다. 지하시설 입구는 가로가 넓은 직사각형이고, 위쪽에 콘크리트로 된 통풍구가 있으며, 출입구 콘크리트에 총탄 자국처럼 파인 곳이 많이 있다.

아마도 1953년 6월 18일 제10반공포로탈출 당시 생긴 탄흔으로 보고 있다. 아직도 인근 조병창시설 벽면에는 그날의 탄흔 자국이 곳곳에 남아 있다. 출입구 한쪽이 부서져 철근이 드러나 스산한 기분마저 든다. 철근은 피아노 줄처럼 가늘고 매끈하여 마디가 없는 것이 독특한 모양이다.

웬만한 차량이 드나들 정도의 일정한 높이와 너비가 평평한 지하시설로 내부 벽이 깔끔했으며, 지상과 지하로 내려가는 비상구가 두 군데 확인되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입구까지 물과 흙이 가득 차 있어 내려가지를 못했다. 내부 중간에 작은 네모난 대여섯 줄로 된 유리 블록 채광창이 있어 흐릿하게 빛이 들어 왔으며, 군데군데 건축폐기물들이 쌓여 있어 통행에 지장이 있다.

미군의 에스컴 시티가 해체된 이후 미 보충대가 있던 자리는 1970~90년대 한국군 제600 정비대대와 방공포부대가 배치되었고, 이후 2002년에 부영공원이 만들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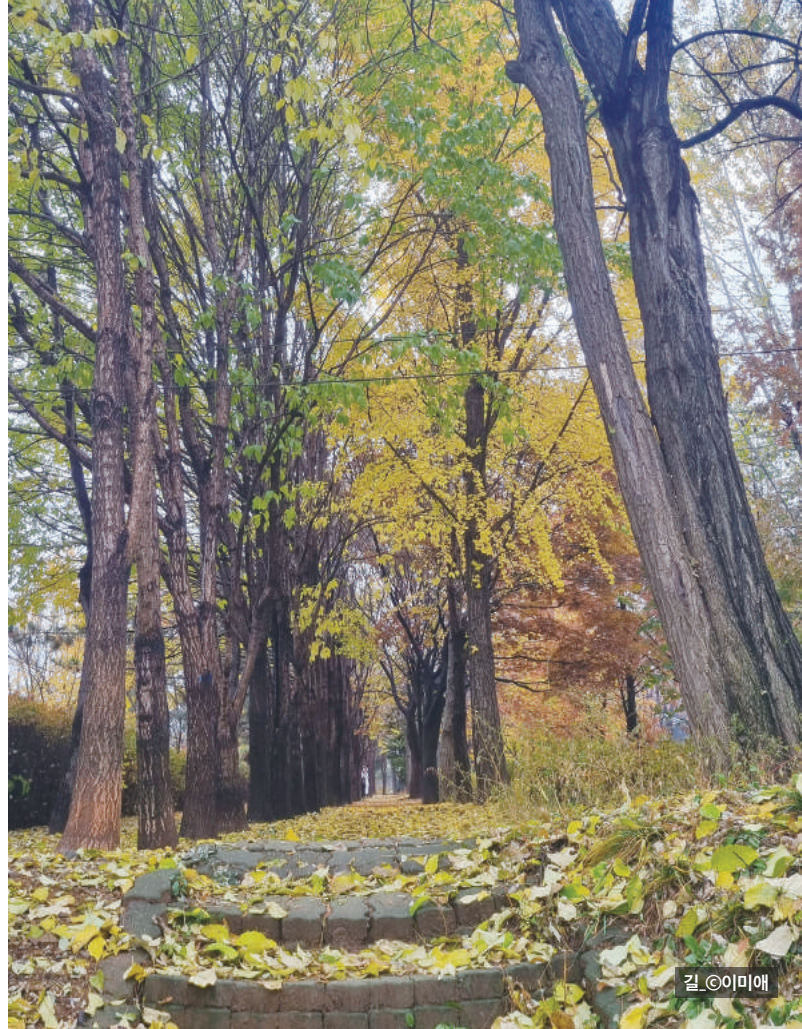
부영공원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146

🗣 내 용 배드민턴장, 야구장, 축구장,
텃밭부평 도시농부학교 교육 프로그램 (매년 2월 모집)

🔍 기타 정보 주차 가능, 애완동물 동반 가능, 유모차 대여 없음









길



길







오래된 안내판



배수로







함께 한 여행자들





왼쪽 박명식 전 부평구문화재단 이사, 오른쪽 이명호 부평스토리텔러 ©고다윤



인천자아경찰대 앞 ©박일용





이미애 1일 사진작가 ©박일용



권순금 1일 사진작가 ©고다윤









여행자 첫만남 ©박일용



거리에서 ©박일용









강선자 여행자 ©박일용



가을여행 ©박일용

우리 지금, 여기에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는
도시라술여행 사진집

발행인	이찬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간번호	2022-24
편집인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총괄	김유정 시민팀 팀장
기획	노수진 시민팀 팀원
기획지원	고다윤
저술	박명식
사진자문	방영문
사진	권순금, 김명숙, 박일용, 서현숙, 이미애, 정석남, 한태경
발행월	2022년 12월
발행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21440)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8(십정동)
디자인	아이드디자인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